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튀니지의 참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로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 서쪽은 알제리와 남동쪽은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튀니지 면적은 16.3만 km²로 우리나라보다 1.5배 넓지만 인구는 1,230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1,340만 명보다 인구가 적고, 튀니지 수도는 튀니스(Tunis)로 지중해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20만 명의 도시다. 이는 튀니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 카르타고가 튀니스 동북 근교에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메디나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가 있다.



사진2 = 카르타고 유적지

튀니지는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부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틀라스산맥 지역이며, 중부지역은 초원 평야지대로서 올리브 나무 재배가 유명하고 남부지역은 건조한 사하라 사막지대이다. 튀니지 북쪽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인 12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비가 많이 오고 남부 및 내륙지역에서는 우기를 제외하면 고온 건조하다. 튀니지 국토의 7% 정도가 산림인데 침엽수로는 알레포 소나무(Aleppo pine, *Pinus halepensis*), 활엽수로는 코르크참나무(*Quercus suber*)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르크 참나무는 알제리 국경쪽 튀니지 북서부의 크루미리에(Kroumirie)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 지대는 연강수량이 1,000mm 이상으로 수자원 공급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코르크 수입은 국가 산림부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무는 땔감으로 많이 이용된다. 코르크 참나무의 수피(樹皮)에서 채취된 코르크는 병마개나 실내의 벽판재 등,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목공예, 땔감 등으로 이용된다. 코르크 참나무는 수고 10~20m, 흉고직경 50~90cm까지 자라고, 코르크 채취는 흉고직경 20~30cm가 됐을 때 시작

하고, 채취 간격은 8~12년으로 수령이 100년이 넘을 때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코르크 참나무의 주요 분포지인 크루미리에 산맥에 있는 젠투바(Jendouba)주는 튀니스 서쪽으로 차랑으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간에는 농경지, 초지, 올리브 농장이 많이 있고 서쪽으로 더 가면 농경지는 사라진다. 산으로 올라가면 암반이 노출된 척박한 산들이 나타나며, 다시 산 아래쪽으로 들어서면 참나무들이 등성등성 자라고 있는 코르크 참나무 숲이 나타난다. 코르크 참나무는 흉고직경이 30~40cm 정도로 굵지만 높이가 5~6m 정도로 낮아서 이 지역이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줄기가 2m 정도 높이까지 수피를 채취해 수피가 밋밋하고 위쪽은 수피가 그대로 있어 코르크층이 두껍고 굴곡이 심한 코르크 참나무 수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코르크 채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 아래쪽 평지는 코르크 참나무 굵기가 20~30cm 정도로 수고가 10~15m로 비교적 키가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코르크 채취가 실시되고 있어 2m 높이까지는 짙은 색의 수피가 자라고 있으며, 줄기도 구불구불한 것이 많아 코르크가 주요 수입원임을 보여준다.

사진3 = 평지 코르크 참나무 숲 전경





사진4 = 코르크 참나무가 같이 자라는 포르투갈 참나무 숲

코르크를 채취한 한쪽에는 코르크 참나무를 벌채해 쌓아 놓은 것들도 보이는데 이 나무들은 아마도 땀감으로 이용 될 것 같다. 산 위로는 해발이 높아서인지 포르투갈 참나무 (Quercus faginea)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굵기는 한 아람 이 정도며, 나무 높이도 15m 정도다. 줄기가 곧은 포르투갈 참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과 줄기가 구불구불한 코르크 참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염소가 방목되고 있어 이 숲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을 주변 길가에는 커다란 포르투갈 참나무가 서있어 마치 우리나라 성황목을 보는 것 같다. 산에서 내려와 지중해 해안에 있는 타바르카(Tabarka)쪽으로 가다 보면 코르크 참나무 수피가 길가에 높이 2m가 넘고 길게 야적한 것들이 줄지어 있고, 길가에 있는 100년이 됨직한 커다란 코르크 참나무에서 코르크를 최근에 채취했는지 주황빛의 줄기가 색다르게 보인다.

사진5 = 코르크 참나무 수피 야적장





사진6 = 수피를 채취한 코르크 참나무 수피

사진7 = 해안 코르크 참나무 숲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타바르카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로 많이 외국인들이 찾는 휴양지다. 타바르카 주변 해안에서 코르크 참나무 숲이 시작되어 내륙 산악지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안 쪽은 10m 내외 높이 정도로 그리 높게 자라지 못했지만 굽기는 한 아름다움이 훨씬 넘는 거칠고 두터운 수피가 줄기를 감싸고 있는 수령이 200년이나 되는 코르크 참나무가 등성등성 서 있는 숲이 있다.

이는 해안 사구 지역으로 건조하고 양분이 적어서 수령에 비해 높이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코르크 참나무 줄기는 높이 3~4m까지 코르크를 채취한 흔적이 있어 수령 20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튀니지의 코르크 참나무 숲은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이다. 이런 숲이 노령화, 방목 및 용도 전환 등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코르크 참나무는 코르크, 땀감, 목재 등 물질적인 것 외에도 건조한 지역에 수자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르크 참나무 숲의 유지 및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사진8 = 200년된 코르크참나무 숲 전경

자세히 보기

